

- 오역·오타·개인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되면 즉시 삭제합니다.
- [https://jp.finalfantasyxiv.com/lodestone/special/tales\\_from\\_the\\_shadows/sidestory\\_05](https://jp.finalfantasyxiv.com/lodestone/special/tales_from_the_shadows/sidestory_05)
- © 2010 - 2020 SQUARE ENIX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영광의 지는 해」

이것은 아직, 노르브란트의 하늘에 정체의 빛이 넘치기 전의 일.

높은 창문에서 들이비치는 달빛 아래에서 열심히 플라스크를 들여다보는 자가 있다. 이 나라, 피부트 왕국의 주된 국민인 드란족도 갈젠트족도 아니다. 응 모우족의 젊은이, 베크 러그다.

「혼」의 신비를 풀어내려 하는 그는 왕가로부터 그뤼네스리히트 성의 한 구석에 방을 받아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 날도 밤중이 훌쩍 깊었음에도 실험대로부터 떨어질 생각이 없었다. 그런 베크 러그를 방문한 사람이 있다.

피부트 왕국의 제2왕녀, 폴디아였다.

불임성이 있고 호기심이 왕성한 이 드란족의 소녀는 휘황찬란한 왕성에서 은자마냥 살고 있는 베크 러그가 왜인지 매우 마음에 든 것 같이 빈번히 방문해서는 자기 주변에서 생긴 일들을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조금도 입을 열지 않는다.

의아하게 생각한 베크 러그가 돌아보니 그녀는 드물게도 어두운 표정이었다.

「피아, 설마 침울해져있는 거야?」

베크 러그는 친근하게 애칭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줄곧 흔들릴 뿐.

「하항~ 그러고보니 네 언니인 솔디아 공주가 세가지 국보를 계승한 건이던가?

그게 제2왕녀인 너로서는 하나도 재밌지 않은 이야기일테지」

피부트왕국에서는 쌍두 이리를 장식한 장신구를 국보로 두고 이것을 대대로 왕위계승자가 이어받고 있었다. 바로 이전날,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 제1왕녀인 솔디아로 정해졌다. 이것은 사실상의 왕태자 결정을 의미한다.

아무리 세상 물정에 어두운 베크 러그라도 그정도는 알고있다.

「아냐!

언제라도 공명정대하고 당당한 언니야말로 왕위를 이어야만 해!  
내 소원은 그런 언니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 그런데 아버님이 혼담을……!」

어깨를 떨며 눈물을 비치는 폴디아를 보며 베크 러그는 자신의 둔함을 후회했다.

동료들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왕위를 원한다고 들었지만 아무래도 그녀는 예외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베크 러그가 궁리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방문자가 들어왔다. 흰 로브로 몸을 감싼 여원 체격의 드란족, 왕정마도사 타드리크다.  
그는 허락조차 구하지 않고 실내로 들어오더니 연극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아, 폴디아님, 심중은 짐작하지요.  
그럼에도 부왕님은 나라 안팎으로 솔디아 공주의 왕위계승을 강하게 알리기 위해 제2왕녀인 당신을 다른 나라로 출가시켜 왕가의 밖에 두고싶은 것이겠지요」

갑작스런 방문자에 놀란 모습이긴 했지만 폴디아는 대답했다.

「……물론,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나라의 안녕을 바라고 있는 것은…… 하지만……!」

「그럼요, 그럼요, 당신의 기분은 알다마दा요.  
바라지 않은 혼인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부왕님도 이해하고 있으실 터…….  
그러니까 이 타드리크가 왕가의 상담역으로서 이야기를 주고받아보지요!」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을 얻은 폴디아의 얼굴에는 본래의 밝음이 돌아와있었다.

「어머, 정말!?  
고마워, 타드리크…… 이 얼마나 든든한 말인지!  
그에 비해, 베크 러그는 참…… 위로의 말 하나도 없다니 말야?」

그렇게 말하고 짓궂게 웃는 그녀에게 베크 러그는 어깨를 으쓱여보였다.

며칠 후.  
베크 러그의 연구실에 찾아온 폴디아는 혼인의 건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타드리크의 설득이 통한 듯 롤드릭 왕은 그녀의 혼담을 철회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왕은 그녀가 궁정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제2왕녀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궁정마도사가 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한테 마법의 재능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네게 상담할 일이 있어. 전에 들려줬었지?

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에 잠들어있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비술을 발견했다고……」

매달리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서 도망치듯 베크 러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안돼, 피아. 그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육체의 생명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비약은 완성했지만

마법의 재능을 깨워내려면 혼 그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안돼.」

베크 러그는 위험성을 간절히 설명했다.

혼은 섬세한 것이라 하나를 잘못하면 잠들어있는 재능을 깨우기는 커녕 육체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탁이야, 베크 러그.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궁정마도사가 될 수 없으면 경애하는 언니를 지지하는 것도,

너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돼!

그런 건 싫어, 절대……!」

베크 러그도 같은 마음이었다.

성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우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상냥함에 걸맞는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소원을 이뤄주는 것이 아닐까.

고뇌의 끝에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폴디아는 마술의 시련에서 재능이 있음을 인정받아 떳떳하게 궁정마도사가 되었다.

신분은 변했으나 그 후로도 폴디아는 가볍게 연구실을 방문해서는 두서없이 담소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위험한 비술을 알려준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러고보니 손거울 호수에서 마물이 나타난 것 같던데.

피아도 조심해야한다?」

당대의 롤드릭 국왕이 왕좌에 오르고 수십년간 피부트 왕국은 큰 전란에 휘말리는 일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디선가 침입한 마물에게 양치기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왕국기사의 활약으로 마물은 퇴치하였으나 성 안의 동요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연거푸 같은 사건이 발생해 혼란이 가속하고 있었다.

더욱이 조사를 진행해보니 마물은 바깥에서 침입한 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다. 왕국 내에 거주하던 백성이 모습을 바꾼 것이었다. 내일은 이웃 사람이 마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의심암귀가 되어 공포심은 순식간에 커져만 갔다.

일이 이렇게 되자 롤드릭 왕은 왕국기사단에 더해 궁정마도사들에게도 수사에 함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조직을 통솔하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도리어 현장이 혼란에 빠질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혜성같이 나타나 사태를 호전시킨 것이 제1왕녀 솔디아였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

갈젠트 왕국기사를 거느리고 최전선에 서서 싸워나간다니까!」

폴디아가 흥분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차기 왕으로 인정받은 솔디아가 진두지위에 나서자 평소에 대립하던 왕국기사와 궁정마도사가 결속하여 마물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인 규명은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경계태세가 강화되어 마물로의 변이가 일어나도 빠르게 대응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한편, 베크 러그의 마음 속은 평온하지 않았다. 사람이 마물로 변하는 그 현상에 대해 짐작이 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폴디아에게 가르친 비술. 그것을 응용하면 혼의 본모습 자체를 개변해 사람을 마물과도 같이 이형으로 타락시키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했다.

하지만 그 천진난만한 피아가 비술을 악용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베크 러그는 의심을 떨쳐내듯이 연구에 몰두했다.

그 사이 수사를 지휘하던 솔디아가 마물에게 습격받아 상처입고 그 책임을 지고 호위역의 왕국기사가 추방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베크 러그는 귀를 막듯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범인이 누구든간에 언젠가 누군가가 찾아내 처벌한다. 죄에 걸맞는 것은 벌이라는 대가다. 세계는 그런 균형에 구속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날도 또한 베크 러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플라스크를 흔들고 있었다.

돌연 부서질 듯이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달려들어왔다. 왕가의 상담역을 맡고 있었던 응 모우 족의 슬 오울이었다.

「큰일이네, 베크 러그!  
마물화 사건의 흑막이 판명된 것 같구먼!」

고대하던 날이 드디어 왔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두려워하고 있던 날이기도 했다.  
가능한 냉정을 가장하며 베크 러그는 그래서? 라고 물었다.

「궁정마도사 타드리크일세!  
그녀석이 일련의 사건을 일으킨 것을 모험가들이 밝혀낸 것이네!」

폴디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베크 러그는 마음 속으로부터 안도했다.

「난 이제부터 모험가들과 함께 타드리크를 쫓을 걸세!  
이미 성 안은 마물투성이니 너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방을 뛰쳐나가려는 슬 오울의 등에 대고 베크 러그가 묻는다.

「피아는…… 폴디아는 어디있어?」

「아직 자기 방에 있을테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험가 중 한명에게 보호를 부탁해두었네!」

떠나는 동족을 보며 베크 러그는 친우의 몸을 걱정했다. 며칠 전, 사건을 수사하러 왔다고 하는 모험가들과는 만났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좋은 녀석들이라 정보수집에 도움을 주기까지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의지할 수만은 없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연구실을 뒤로했다.

그러나 전투를 특기로 두지 않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물이 있으면 그림자에 숨은 채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고작이었다. 결국 발견되어 도망치며 헤매는 와중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비켜! 멍멍이!」

야수같은 마물을 단칼에 베어 쓰러트린 것은 엘프족의 검사였다. 은회색의 머리를 굳건히 묶은 그녀는 볼품없이 쓰러진 베크 러그를 차가운 눈으로 훑듯 쳐다보고는 일으켜주지도 않고 달려나갔다.

저건, 아르버트의 동료—— 그렇다면 슬 오울이 도움을 청한 모험가라는 건 그녀인가. 개라고 불린 분노조차 잊어버린 채 필사적으로 그 등을 쫓아가자 폴디아의 방의 문을 발로 차서 부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무례한!」

분개한 베크 러그는 엘프족의 검사를 밀쳐내곤 열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할 말을 잃은 베크 러그의 등 뒤로 빠른 걸음 손에 든 검사가 걸어나온다.

「칫…… 늦은건가…… 최소한의 자비다, 단숨에……」

마물의 피로 더럽혀진 검 끝이 폴디아를 향한 것을 보고 베크 러그는 정신이 들었다.

「그만, 그만뒤!」

「바보같은 소리 마…… 이녀석의 왼팔을 봐, 변이가 시작되고 있어!」

그런 것쯤 베크 러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친우를 죽인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부탁이다, 나는 혼의 연구가야!

그녀를 구해내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목숨만큼은……!」

변이는 돌이킬 수 없다—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음에도 그리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발끝에 매달리는 베크 러그를 보며 엘프족의 검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사람을 습격하기 전에 어딘가에 유폐시킬 수 밖에 없어.

여긴 성이다, 지하감옥 정도는 있겠지?」

결국 옥지거리를 내뱉으면서도 검사는 폴디아를 기절시키곤 지하감옥에 가두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할일이 끝난 것을 보고는 흑막 타드리크를 구속하러 간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버렸지만—.

베크 러그는 어스레한 독방 안에서 친우가 깨어나는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깨어난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어도 마음은 다른 사람처럼 변해있었다.

「네이놈 타드리크, 배신하다니……!」

언니를 없애는 날에는 나를 왕녀로 추대하기로 약속했으면서!

그러기 위해서야말로 베크 러그를 속이고 비술을 손에 넣었건만……!」

눈 앞에 있는 베크 러그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폴디아는 일심분란하게 자신의 피로 벽에 무언가를 휘갈기기 시작했다.

「언니만, 언니만 없었으면……!

나는 언제까지고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

솔디아만, 없었다며어언!!」

잠시간 멍해있던 베크 러그였으나 더이상은 듣고있을 수 없어 오쳤다.

「그 가족에 솔디아 공주는 들어가있지 않은거냐!?

피아! 너는 누구보다도 그녀를 경애했잖아……!」

그러자 어떠한가. 폴디아는 고개를 빙글 돌리고는 눈을 크게 떴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맞아…… 나는, 가족과……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언니와……

이상하네, 왜 잊어버리고 있었지……」

힘없이 주저앉은 솔디아의 신체로부터 검은 안개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타드리크의 저주에 의해 그녀의 마음이 묶여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안해, 베크 러그……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한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 한방울이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폴디아의 신체는, 완전히 마물로 변이하고 말았다.

그 날을 경계로, 베크 러그는 모습을 감추었다.

일련의 사건에 의해 차기 왕을 잃은 피부트 왕국은 빛의 범람 후 이 지역을 습격한 죄식자 무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윽고 나라를 버리게 된다.

그뤼네스리히트 성이 방치되었을 때, 한명의 왕국기사가 예전의 제2왕녀를 가엾게 여겨 독방의 열쇠를 열었다고 하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으나, 그 후, 폴디아가 어떻게 되었는가. 진상을 아는 자는 없다.